

[보도자료] 쿠팡, 토마토 전량폐기 위기 처한 농가 돕는다..1주간 400여 톤 매입

2023. 4. 17.



농업회사법인(주)팜팜의 직원들이 수확한 토마토를 들고 웃고 있다.

- 재고 해소 어려운 지역 농가 토마토 대량 매입..국내 최대 수준
- 충남·전남·전북 등 전국 농가 지원..”쿠팡 도움으로 전량폐기 위기 모면”
- 로켓프레시 새벽배송으로 최대 37% 할인

2023. 4. 17. 서울 - 쿠팡이 전국 수백 곳의 농가에서 토마토 400여 톤을 매입해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단일 유통 기업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쿠팡은 최근 토마토 수요 급감으로 판로가 끊긴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토마토 400여 톤을 오는 23일까지 1주간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곳곳의 토마토 특산물 등 쿠팡에 토마토를 납품하는 전국 농가 수백곳에서 매입물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방울토마토 품종에서 나타난 복통·구토 증상 등으로 전량 폐기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번 이슈와 무관한 국내 대부분의 토마토 농가들까지 거래처 납품 중단, 재고 해소 부진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 이번에 매입하는 토마토는 충남 부여·논산, 전남 담양·화순, 전북 김제, 화성시 등 전국 각지의 토마토 농가에서 재배됐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은 물론, 쿠팡의 품질 관리 전문가(Quality Assurance)의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상품들이다. 쿠팡 로켓프레시 출범부터 함께한 국내 최대 토마토 생산농협인 부여 '세도농협' 등 소비자로부터 맛과 품질을 검증받은 지역 농가들이 많다.

쿠팡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토마토 농가 돕기 캠페인'을 열고 최대 37% 할인가로 토마토를 판매한다. 캠페인 할인 물량을 과거 진행한 토마토 기획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만큼 다양한 맛과 품종의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천연 당류 '스테비아' 토마토부터 흑토마토, 찰토마토, 사과 토마토, 주스용 완숙 토마토 등을 로켓프레시 새벽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쿠팡이 대량 토마토 매입에 나서자 토마토 농가들은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를 모면했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 논산의 농업회사법인(주)팜팜 양광식 대표는 “일부 토마토 농가에서 발생한 유해논란이 업 전체로 불똥이 튀면서 기존에 납품

하던 대형마트, 급식업체에서 거래를 끊어 출하되지 못한 토마토 재고가 수십 톤 이상 쌓였다”며 “단 1주일만 지나도 전량 폐기하는 수순이었지만, 쿠팡의 발빠른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다”고 했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위기에 처한 전국 지역 농가들이 만드는 품질 좋은 과일을 대량 매입해왔다.

지난 추석에는 이른 명절로 판매 시기를 놓친 사과 100여 톤을, 올 들어 설 연휴에도 딸기, 사과, 토마토 등 제철 농산물 200여 톤을 매입해 지역 농가 소비를 활성화했다.

쿠팡 관계자는 “정성 들여 키운 토마토가 외면 받아 상심이 깊을 농민분들을 돕고자 대량 매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봉착한 지역 농가들과 상생하며 우수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